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배포일자	2023년 3월 31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수산기술 지원센터	담 당 자	• 수산기술보급팀장 이의진 ☎458-7461 • 담당자 황윤재 ☎458-746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 원 금융 지원

- 인천시, 2023년 수산업경영인 17명 선발 지원 -
 - 선발된 어업인후계자 5억 원, 우수경영인 2억 원 융자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17명을 선발해 어업 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해 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수산업경영인은 연령,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뉘지며 올해는 어업인후계자 13명, 우수경영인 4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수산업경영인은 20대 4명(24%), 30대 6명(35%), 40대 5명(29%), 50대 2명(12%)으로 젊은 청장년들이 많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어선어업 종사자가 14명(82%), 양식어업 종사자가 3명(18%)이고

지역별로 강화군 3명, 옹진군 6명, 중구 3명, 동구 1명, 미추홀구 1명, 연수구 1명, 남동구 1명이 선정됐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어업인후계자는 최대 5억 원(연리 1.5%, 5년 거치 20년 균분 상환), 우수경영인은 최대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의 금융지원을 받아 어선 건조 및 구입, 양식장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신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1년부터 수산업경영인을 선발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407명을 선발했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그간 “신규 수산업경영인들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자체 전문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들이 경영 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관련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붙임>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전문심사위원회 개최 사진



2023년도 수산업경영인 전문심사위원회 개최